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진안군,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접종 시작... 3주 간격 2회

진안군은 오는 15일부터 5월 말까지 전문분화접종관에 위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위치: 진안군 진안읍 우회2길 35)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 인원은 75세 이상 주민 중 사전 예약동의자 3,742명(동의율 85.59%)과 노인시설 3개소 입소자 및 종사자 131명을 포함하여 총 3,873명으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이뤄지며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예방접종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접종 편의를 위해 전세버스를 임차해 접종 일정별로 읍·면을 순회하며 운행할 예정이며 읍·면마다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접종 일정은 ▲15일 노인시설과 안전편을 시작으로 ▲16일 백운면, ▲19일 성수면, ▲20일 마령면, ▲21일 부귀면, ▲22일 주천면, ▲23일 동향면, ▲26일 용담면(오전), 상진면(오후), ▲27일 정천면(오전), 진안읍의 경우 27일 오후부터 30일까지며 해당 읍면에 45인승 전세 버스 3대가 순환 운행하며 대상자들을 수송할 계획이다.

1차 접종 후 3주 후인 5월 6일부터는 2회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예약 당일 미접종자는 해당 읍·면 담당자를 통해 예약 일정을 조정해서 접종할 수 있다.

군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지난 6일 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접종센터 내 CCTV설치, 백신보관 냉장고에 자가 발전기 및 무정전원장치를 추가 설

치완료 등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접종을 위해 13일 화이자 백신 1,170명분 입고를 완료했으며, 일주일 간격으로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이나 일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미리 알리고, 접종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예방접종 콜센터(430-8018~19, 430-8552, 8548)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제2차 본회의 군정 질의

이우규 의원,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촉구

진안군의회 이우규 의원은 13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의를 통해 "진안군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통합 폐수처리시설 설치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보이는 등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하고 싶어도 신규산업용지와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우규 의원은 기업유치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폐수를 연계처리 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물으며 "진안군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며 질문을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균형발전 위해 동·서 교통망 구축해야"

무주군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무주군민과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전주~무주~김천 철도,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고 한반도 동·서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안'은 4월 13일 열린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해양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주~무주~김천 철도 연결 반영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신규사업으로 꼭 반영하여 줄 것을 무주군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주~무주~김천 철도(101.1km 2조

3,894억원)와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127.2km 4조8,578억원) 건설은 지금까지 지역주민은 물론 자치단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그 필요성을 부각해왔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는 등 경제적 논리에 의해 오랫동안 외면 받았다. 무주군의회는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국가교통망 구축은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대승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철도와 도로는 그 지역의 핵심 인프라로 인적·물적 이동과 경제발전의 대동맥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무주군을 관통하는 국가교통망 구축이 ▲단절된 영·호남의 물리적, 정서적 장벽 탈피와 지역융화 계기 마련, ▲전북도와 중부권, 동서생 활권 교류 활성화로 지역 생활발전과 균형발전 실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연결로 물류비용 절감 등 각 분야에

걸쳐 막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동·서 교통망이 완공되는 시기에는 새만금을 통해 해외자원을 유치할 수 있으며 완성된 국가교통망 활용으로 국가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해양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과 남부지역을 잇는 남북축의 발전에 매진하였다면 이제는 중부권 지역의 사통팔달에 매진하여야 한다.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 관광상품으로 성장시킨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주가 동·서와 남·북의 연결 통로로서 한반도 신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한민국 국회의를 비롯해 청와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전라북도, 무주군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최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13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까지 9일간 이루어진다.

회기 첫날인 13일에는 이해연 의원 발의의 '무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문은영 의원 발의의 '무주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및 집행부 제출 12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건의 의견제시안 등 총 2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14일에는 이번 회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3개소 ▲무주 생태

모험공원 조성사업 현장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 ▲축사 이전 관련 무주군-상가리 새마을회 임야교환 대상지 및 반다나래지원센터 등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사업의 진행 실태를 점검하고, 15일부터 19일까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드림스타트 아동에 체험 키트 전달 추진

장수군은 16~30일까지 코로나19로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외출이 어려운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음식체험 키트 상품을 전달한다.

이번 키트 상품을 통한 체험 활동은 홈베이킹과 공예 두 종류로, 내년 초등학교 졸업예정 2기 가정에게는 빵케익, 쿠키만들기 패키지를, 이외 30가정에게는 비누 꽃바구니, 모스공예 만들기 패키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패키지 상품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대상가정에 전달하고, 드림스타트 아동의 가정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조금씩 주민복지실장은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군의 미래 꿈나무들인 아동들에게 작은 감동을 주고 아동의 보육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무주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2021년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은 수매형인 ▲사과(홍로, 후지)와 ▲포도(캠벨, MBA, 진옥, 사인머스켓), ▲생전마, ▲생오미자, ▲수박(흑미), ▲잡곡(조, 수수, 기장)으로, 신청자 본인(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농협 조합원인 경우 3개월 이상)이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가지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청 농촌활력과 가공유통팀 윤수진 팀장은 "올해는 포도 사인머스켓 품종이 추가됐다"며 "농산물 전체 품목을 취급하는 수매2형 사업은 농가의 별도 신청 없이 '무주반딧불초합공사업법(사업수행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대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조준열 의원, "다양한 산림정책 개발·지원 필요"

진안군의회 조준열 의원은 13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산림·임업분야 육성대책"과 관련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조준열 의원은 "진안군은 전체 면적 중 임야의 비율이 77%가 넘는 산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을 활용하기보다는 보호정책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다"며 "충만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고하고 미래형 성장 동력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산림정책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분야와는 달리 진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업소득 지원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을 언급하며, 양질의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인적자원을 컨설팅 할 수 있는 중심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우리군의 중장기 계획, 임업분야 및 임업인 지원확대 방안을 물으며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청정한 진안고원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질문을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박관순 의원,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해야"

진안군의회 박관순 의원은 13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과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박관순 의원은 "진안군은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할 중 한 곳인 마이산 탐사는 물론 기암절벽과 깊은 계곡을 자랑하는 운일암반일암 등 다수의 관광胜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이 아쉬운 상황이다"며 "스토토리텔링과 언택트 관광이라는 트렌드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유형과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 촉진과 사회 참여를 증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관순 의원은 "재정이나 인력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사회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진안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질문을 마무리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